

2017 대만 원두커피 시장 동향

1. 대만 커피 시장의 개요

- 대만 커피시장 규모는 연간 약 TWD650~700억불(한화 23,400~25,200억원)으로 2016년 기준 편의점 커피의 판매액은 TWD180억불(한화 약 6,480억원)이며, 커피전문점 판매액은 TWD230억불(한화 약 8,280억원) 으로 나타남
- 현재 대만 커피시장은 프리미엄 커피를 선호하는 추세로 소비자들은 원두 및 생두 커피의 산지, 풍미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커피전문점도 지속 성장하고 있음

2. 대만 원두커피 시장 수입 및 소비 실적

- 대만 커피시장(생두, 원두) 수입량이 2004년 10,878톤에서 2016년 30,327톤으로 지난 10년간 3배로 성장되었음

<2004년~2016년 대만 커피시장 수입량>



<자료원: 대만 재정부>

- 2016년 기준 연평균 판매되는 커피량은 약 28.5억 잔이며, 1인 소비자가 연간 소비하는 커피는 122잔으로 2년 전 소비량 100잔에 비해 20% 상승 됨
- 대만소비자들의 월평균 커피소비량이 2011년 13잔에서 2016년 15.4잔으로 18.5% 성장하였으며, 매일 커피 1잔 이상을 마시는 소비자도 2011년 18%에서 2016년 23%로 성장 됨

3. 대만 소비자의 커피 선호 경향

- 대만 최대유통매장 7-11편의점 및 패밀리마트에 의하면 대만소비자들은 점차 아메리카노 커피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아메리카노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7-11 커피 구매자의 40%를 차지하며 2012년 20%에서 2017년 40%로 성장 됨. 또한
- 또한 아메리카노 커피 선호 소비자 중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고 음용하는 경우가 65%를 차지하는 등 오리지널 커피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음
- 패밀리마트는 커피의 부드러운 맛, 진한 커피의 향, 풍부한 맛과 향, 쓴맛이 남지 않는 등의 조건 임

<대만 소비자의 커피 선호 경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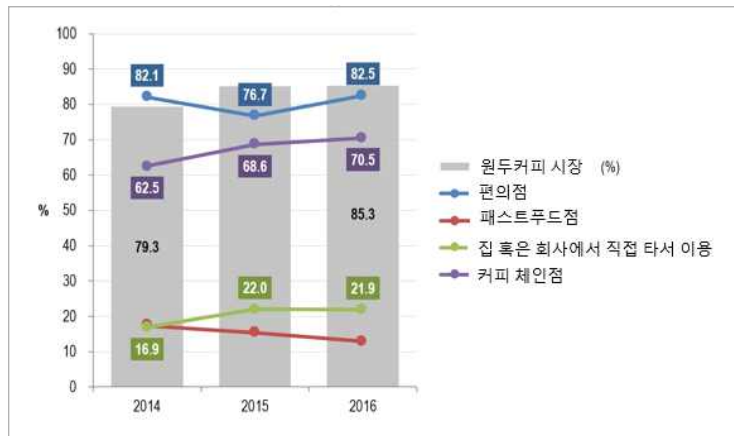


<자료원: 연합보>

4. 대만 소비자의 커피 주요 구매 통로

- 대만 동방 온라인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대만소비자들이 선호한 커피타입 중(캔커피, 즉석커피, 원두커피) 원두커피가 85%를 차지하였음
- 한편 대만 소비자들이 주로 원두커피를 구입하는 장소는 커피전문체인점, 편의점, 패스트푸드점, 집이나 회사에서 직접 타서 이용 등 중에서 편의점이 82.5%를 차지함. 조사결과에 편의점에서 주로 커피 구입하는 소비자는 빠르고 간편한 점에 의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으며, 커피전문체인점은 약 8% 상승, 집에서 직접 타서 음용하는 경우는 약 20%대로 2014년보다 5% 상승하였음

〈대만 소비자들이 원두커피 주요 구입처〉



〈자료원: I SURVEY 동방온라인〉

시사점:

- 현재 대만커피시장은 원두, 생두 수입이 급격이 증가하였고 커피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원두커피 등 오리지널 맛을 선호하고 있음. 특히 커피는 취향에 많이 의지하는 만큼 주요 통로인 편의점, 커피전문점 등으로 한국산 커피류의 진출을 위한 대만 소비자의 커피 선호경향 및 주요통로인 편의점 및 커피체인점 등의 시장 여건 등의 조사가 필요

〈자료원: 연합뉴스 2017. 11. 24〉